GWANGJU F.C MATCHDAY PROGRAM
K LEAGUE CHALLENGE
2013 No.10



VIEW

Today's Home Match

광주 vs 부천

9월 1일 (일) 16:00

Next Home Match

광주 vs 안양 9월 15일 (일) 16:00

Photo Gallery

2013/08/19 (월) 20:00 경찰전













Data

2013 K리그 챌린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구단	경기수	승점	승	무	패
1	경찰 축구단	21	47	15	2	4
2	상주상무피닉스	21	38	10	8	3
3	FC안양	21	30	8	6	7
4	광주FC	21	29	8	5	8
5	수원FC	21	26	6	8	7
6	고양FC	21	25	6	7	8
7	부천FC	21	22	5	7	9
8	충주험멜	21	12	3	3	15

광주 FC 최근 5경기 전적

K LEAGUE CHALLENGE

대회명	날짜	홈	스코어	원정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7/15	부천	2 – 3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04	광주	1 – 2	고양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11	안양	3 – 3	광주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19	광주	3 – 1	경찰
현대오일뱅크K리그챌린지2013	2013/08/26	수원	3 – 1	광주

광주 FC 2013시즌 득점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득점	경기수	득점률
1	루시오	9	21	0.43
2	김은선	4	17	0.24
3	김호남	4	18	0.22

광주 FC 2013시즌 도움 순위

K LEAGUE CHALLENGE

순위	선수명	도움	경기수	도움률
1	루시오	6	21	0.29
2	김호남	5	18	0.28
3	박현	2	15	0.13

K리그 챌린지 2013 광주FC 홈 경기 일정

날짜	시간	HOME	AWAY
2013.04.20(토)	14:00	광주	고양
2013.04.28(일)	14:00	광주	경찰청
*2013.05.08(수)	19:00	광주	충주
2013.05.13(월)	19:00	광주	안양
2013.06.06(목)	14:00	광주	부천
2013.06.09(일)	19:00	광주	경찰
2013.06.30(일)	19:00	광주	상주
2013.07.06(토)	19:00	광주	충주
2013.08.04(일)	19:00	광주	고양
2013.08.19(월)	20:00	광주	경찰
2013.09.01(일)	16:00	광주	부천
2013.09.15(일)	16:00	광주	안양
2013.09.28(토)	14:00	광주	수원FC
2013.10.06(일)	14:00	광주	경찰
2013.10.20(일)	14:00	광주	부천
2013.11.03(일)	14:00	광주	안양
2013.11.10(일)	14:00	광주	충주
2013.11.23(토)	14:00	광주	경찰

*FA CUP 경기

중흥S-클래스 | 행복한 광조도시 광주 | KJB 광주은행
joma | 우미건설 | 조선대학교병원
GS&POINT | 그래미 | 롯데시네마 수완·광주
광주월드컵점 | 밝은안과21 | 청연의료재단
사랑방 신문 | TS 교통안전공단 | 고려산삼
모아레포츠타운(주) | 광주수완병원 | 광주광역시교육청
해모수 휘트니스 클럽 | 중흥 골드스파&리조트 | 광남일보
월드 | 민속촌 | 무진주

발행처 광주FC사무국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암동) 광주월드컵경기장 2층 전화 062)373-7733

Review

흔들렸던 수비와 아쉬운 결정력에 울다



광주가 수원과의 원정경기에서 패하며 한동안 고수하던 3위 자리에서 밀려났다. 광주FC는 26일 저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1라운드 수원FC와의 원정경기서 루시오가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 득점을 올렸으나 전-후반 통틀어 3실점하며 끝내 패배를 당했다.

초반부터 맹공으로 나온 홈팀 수원의 기세에 수비라인이 흔들리며 일찌감치 2실점 당한 게 패인이었다. 광주는 전반 16분 만에 수원 임성택의 오른쪽 크로스에 이은 김서준의 밀어 넣기 골을 허용했다. 불과 2분 뒤에는 반대편 측면에서 외곽으로 흘러나온 크로스에 이은 수원 조태우의 원 바운드 중거리 슛까지 허용하며 0-2로 뒤졌다.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에 나선 광주는 전반 32분 수원 PK박스 안쪽에서 상대의 파울로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루시오가 실축하며 만회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다. 그럼에도 루시오는 역시 해결사였다. 전반 37분 수원 진영 가운데서 볼을 잡은 루시오는 전방의 김호남과 패스를 주고받은 후 지체하지 않고 특유의 왼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다.

하지만 이 상승세를 살리지 못하고 후반 7분 수원 김본광의 크로스에 이은 박종찬의 헤딩슛에 실점하며 스코어는 1-3으로 벌어졌다. 이후 따라잡기 위해 총력을 다 한 광주는 후반 교체 투입된 전명근의 슬라이딩 슛이 수원의 골대를 맞고 나왔고, 경기 종료 직전 수원 문전에서 때린 슈팅마저 아쉽게 상대 골문을 살짝 벗어나며 끝내 2골 차 패배를 당했다.

Preview

광주, 반드시 승리해 전환점 마련한다!



지난 라운드서 수원에 패하는 바람에 후반기 접어들어 1승 1무 2패의 부진에 빠진 광주가 부천을 잡고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남기일 감독대행이 이끄는 광주FC가 오는 9월 1일 일요일 오후 4시 안방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최근 한없이 추락하는 부천FC를 맞아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제22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수원전 패배로 안양에게 3위 자리를 내준 광주 선수들은 이번 경기를 반드시 승리해 일주일 만에 다시 제 자리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수비라인의 재정비다. 수원전에서 보듯 경기 초반 집중력과 위험 지역에서의 대인방어 등 갖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또한 중원에서부터 상대 볼 전개를 일차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끈끈함도 재고해야 한다. 다만 아쉬운 건 핵심 미드필더인 김은선이 경고 누적으로 이번 부천전을 뛸 수 없다는 점이다. 대체 자원을 물색해야 하는 남 감독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행히 루시오를 축으로 한 공격진의 득점포는 후반기에도 막강함을 과시하고 있어 수원전 같은 골대 불운만 없다면 부천을 상대로도 막강 화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Focus

부천 FC 1995 – 추락하는 부천은 날개가 있다?



"내려갈 팀은 결국 내려간다" 는 말은 K리그 챌린지에선 부천FC를 두고 하는 말이었던가? 지난 6월 2일 충주전 승리 이후 지난 주말 고양전까지 무려 10경기 연속 무승(3무 7패)의 부진에 허덕이며 한 때 3위를 꿰차고 2위까지 넘보던 순위가 어느새 7위까지 곤두박질쳤다.

5월 중순부터 중원과 수비라인에서 속출하기 시작한 부상자들로 인해 한여름에 접어들며 팀 전체의 수비력이 급격히 저하된 것이 컸다. '에이스' 임창균은 이제 상대팀들에게 집중 마크당하며 전반기만큼의 위력적인 찬스 메이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임창균이 막히자 최전방 공격수들의 위력까지 덩달아 떨어졌다.

그나마 측면에서 이후권, 최후방에서는 한종우의 분전이 눈에 띄지만 전체적으로 선수층이 K리그 챌린지 내에서도 두텁지 못한 부천이기에 주전급들의 부상이나 부진에 대비한 카드가 여의치 않다는 것도 곽경근 감독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부천 공민현

부드러움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움

압도적인 신체조건이나 파워, 스피드를 갖추진 않았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가 부드럽고 안정적인 볼 처리 능력이 있다. 더불어 상대 수비라인의 허점을 파고드는 지능적인 움직임이 돋보인다.

루시오 – 자타공인 K리그 챌린지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팀 성적의 기복과는 별도로 공격수 루시오가 뿜어내는 위력은 이미 K리그 챌린지를 넘어 K리그 클래식 관계자들과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정도로 대단하다. 올 시즌 벌써 9득점에 6도움, 최근 3경기 연속 골 등 명실상부 'K리그 챌린지 최고의 외국인 공격수' 라 불릴 만하다.

위치와 거리를 가리지 않고 자그마한 틈만 나면 때려대는 강력한 왼발 슈팅은 나머지 7개 팀 골키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된지 오래이며, 이런 자신에게 쏠리는 상대 수비수들의 허점을 역이용해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량까지 겸비했다. 특히, 이런 어시스트 능력은 과거 K리그 클래식 시절에 비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

비록 후반기 광주의 출발이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팀 공격의 선봉장 루시오가 이토록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라운드 위의 모든 동료들은 그에게 절대 신뢰를 보이며 이제부터의 대반격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